

로컬리더스

삼학동 윤석봉씨, 숭선수범 귀감

한 시민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소공원 등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어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군산시 삼학동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봉(54세)씨. 윤 씨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삼학동 관내 금광·모시공원 및 소공원의 잡초제거, 잔디 깎기 및 쓰레기 수거는 물론 공원 내 시설물도 직접 정비해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윤석봉씨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깨끗하고 쾌적하게 변하는 마을을 보며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환경정비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교도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군산교도소(소장 박광래)는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11일부터 16일까지 전체 22여개 수용동 거실 및 작업장 출입문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태극기 달기 운동은 직원들과 수용자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교도소는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국기 선양을 통해 자율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광판 표출, 홍보용 모니터를 활용한 방문 민원인에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산교도소는 지난 제68주년 제헌절 주간에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자 태극기를 게양하여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함양에 힘쓴 바 있다.

군산교도소 박광래 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과 수용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국경일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국민통합과 국민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국경일 등 국기 게양일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와 군산시는 조선업종 근로자와 기업에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 조선업 일자리 지원센터' 개소식을 11일 열었다.

군산 일자리 지원센터 개소

조선업종 실직(예정)자 생계안정·재취업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전북도와 군산시는 조선업종 근로자와 기업에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 조선업 일자리 지원센터' 개소식을 11일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장, 고광훈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금정수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등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지원센터 개소는 지난 6월 30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등 지역 고용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조선업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지원센터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조선업에 특화된 일종의 통합서비스로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등 총 10개 기관이 조선업종 실직(예정)자와 그 가정에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조선협력업체 등에서 실직한 근로자와 실직가정의 주부 등이 상담·진단을 통한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와 가족힐링프로그램, 복지서비스부터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체계적인 전직지원 등 심화된 재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귀어상담 및 문화힐링교육 프로그램은 군산지원센터만의 특화된 서비스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참여하여 유통서비스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내년 초 예비창업자 모집을 거쳐 창업자금 보조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군산조선업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913-1122, 1133)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광복절 맞아 경축행사 열어

애국정신·광복 의미 되새겨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군산지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71회 광복절 경축행사를 거행한다.

광복절 경축행사에는 문동신 군산시장과 보존단체장, 독립유공자 유족, 군인, 학생,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인 색소폰 연

주와 무궁화 플래쉬몹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전권권 광복회장의 기념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의 경축사,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전년권 광복회 군산지회장은 “제71주년 광복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환희와 감격은 자랑스러운 선열들께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불굴의 인내와 정신력으로 일제를 극복하셨던 항일 독립운동의 결실이다”며 “분단의 아픔을 절절하게 전하며, 광복의 완성은

남북의 평화통일이며 남북한 간의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폭압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계셨기 때문이다”며 “71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최우수 등급 선정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공동훈련센터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2015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전국 50개 기관 중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2014년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기관으로 선정돼,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지역인력양성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업 3년차인 현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훈련과정을 통해 양성교육(취업예정자과정) 115명, 향상교육(재직자과정) 511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향상교육의 경우 612명이 수료함으로써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

조석남 학장은 “기술교육의 메카인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산업현장에 밀착된 평생직업능력개발 대학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문 열고 냉방가동 업소 단속

익산시는 8월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8일 오후 3시 전력수요가 8,370만kW까지 치솟음에 따라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이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된다”며 “문을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끼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지역 내 모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농업용수 공급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선호)는 막바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8월 현재 익산지역 관내 26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2.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평년대비 86.2%를 상회하는 저수율로 금년도 영농급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8월 이후 가뭄이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저수량 및 용수 공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재난발생의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처를 위한 물관리자동화(TM/SC)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가뭄·태풍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 사용해야 하는가  
 싱크대 배수통 역오래 찌든때와 막힘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 하고 싶다면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님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http://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http://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막스]**  
**“씨서라”** 사용해야 하는가  
**“씨서라”** 사용해야 하는가  
**“씨서라”** 사용해야 하는가